

중학생의 성격특성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관련 부모 지지의 조절 효과

박 영 자 이 수 란 정 은 경[†]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대학교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N = 180$)으로 이들의 성격요인(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이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진로모델링, 정서적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격려)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지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변인들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신경증을 제외한 4가지 성격요인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5개 성격요인들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감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는 친화성 요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지지 및 도구적 조력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는 개방성을 제외한 4개 성격요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진로지지 유형은 성격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성격 및 진로지지 등의 선행연구 결과가 중학생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성격 특성에 따라 더욱 적합한 부모의 진로관련 태도가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격특성, 성격 5요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관련 부모 지지

[†] 교신저자 : 정은경,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ekchung@kangwon.ac.kr, 033-250-6854

서 론

진로를 전 생애에 걸친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Super(1953; 1990)의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행동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자신과 직업, 직업세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며 실행해나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진로발달은 특정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의 진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진로가 발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관련 연구의 대상을 보다 넓게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가 대학생이나 성인초기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진로발달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세계에 뛰어드는 청년기 이전의 시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 볼 때, 중학생 시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며 자신의 능력과 특성, 가치와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길수, 2004). 이러한 이론적 중요성 외에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중학생 시기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중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실제 직업을 선택하기 전까지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고등학교 선택과 계열 선택, 대학 선택, 전공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에 대한 탐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어떤 고등학교에 진할 것인지, 미래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계획하며 잠재적인 진로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중학생 시기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과 같은 자

기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기 시작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학생은 학업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성적에 맞추어 진로를 결정해버리곤 한다(Lee, 2012). 성적위주의 진로선택은 진로에 대한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졸업을 유예하거나 취업을 미루는 대학생의 수는 2011년 이후 3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교육부, 2014). 반면, 진로교육을 접한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에 긍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여성가족부, 2014). 이러한 현상들이 시사하는 바는 진로탐색 및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진로관련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 중학생 시기에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해 진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김충기, 2001), 이를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또 다른 진로 발달 과제는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시작하고 결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로선택과 의사결정, 진로계획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Lent & Hackette, 1987; 이현주,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진로발달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적 변인인 성격과

더불어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로발달을 살펴보았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고 안정된 자기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며, 직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은 이상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선행요소라 할 수 있다(Harren, 1979). 많은 진로이론가들은 진로정체감을 진로발달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진로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개인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직업)을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목표에 부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진로발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발달이 '직업적 자기개념'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로서, '직업적 자기개념'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Super(1953)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진로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성공적인 진로계획 수립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진로정체감 획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Blustein, 1989; Holland & Holland, 1977; 이기학, 이학주, 2000; 이지원, 이기학, 20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Hackett과 Betz(1981)는 Bandura(1977)가 사회학습이론에서 정의한 자기효능감을 진로선택과 진로결정 과정에 적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적응에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이후,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수행과제의 실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5가지 영역(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으로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탐색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명확한 목표 아래 스스로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탐색해볼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달라진다(Church, Teresa, Rosebrook, & Szendre, 1992). 반면,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진로 성숙도 역시 낮아지거나(이기학, 이학주, 2000), 진로 미결정 상태에 머물 수 있다(이성식, 2007; 이은경, 2001; 이현주, 2000).

성격과 진로발달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진로발달에는 개인 내적인 변인과 외부 환경적인 변인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는 주로 지능, 학년,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변인이 연구되어 왔으

나, 최근에는 안정성, 친화성, 사회성 등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길수, 2004). 성격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은 인간의 행동, 삶의 적응과 관련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의미하며(박아청, 2008; 안창규, 1997), 개인마다 구별되는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의 개인차를 반영한다(Allport, 1961).

Super(1953), Holland(1985) 등 전통 진로이론가들이 개인의 성격에 적합한 진로선택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Fretz(1981)가 개인의 성격 특성을 이해할 때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많은 진로이론가들은 성격을 진로발달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진로관련 연구분야에서는 성공적인 직업 적응 및 직무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성격특성이 언급되는 등 성격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유태웅,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활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수준이 높고, 자아강도,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진보성 등이 진로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종구, 1986). 또한 지배성, 정서적 안정성, 사교성, 책임성 등이 높은 경우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강관구, 1997; 유병언, 1988). 성격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성격 5요인(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과 진로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연구마다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자기주장이나 활발한 활동과 관련되는 외향성,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하며 과제와 활동의 수행하는 성실성 등이 진로 탐색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오은주, 2013). 구체적으로 김동원(2013)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과 성실성이 진로의식의 성숙을 예측했고, 오현정(2008)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진로태도 성숙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 김태연(2011)과 조은주(2001)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진로정체감과 정적관계를, 신경증은 진로정체감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성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Hartman과 Betz(2007)에 따르면,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외향성이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신경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특성이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그러나 성격특성 자체가 다양하고 진로관련 변인의 종류에 따라 각 성격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특성이 진로발달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내적인 특성 외에도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타인의 의견과 인정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Erickson, 1968; 이동귀, 이수란, 2008). 예를 들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을 바라보는 주변의 태도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특성과 외부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지지와 진로발달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진로 연구자들은 개인 내적 요인의 중요성뿐 아니

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Lent, Brown, Hackett, 1994; Hackett & Betz, 1981). 청소년기는 진로발달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발달 특성상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며 외부의 조력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업을 조력하는 외부 환경으로는 가족과 학교, 또래집단, 사회적 환경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의 의견이 큰 영향력을 갖는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의 태도와 진로발달의 관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김정애, 1994; 이광자, 2004).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으로는 주로 애착 및 양육태도가 언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안정애착은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하고(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목경수, 구자경, 2012;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또한, 부모의 민주적,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진로성숙과 긍정적 관계에 있고(권혁본, 2001; 박은혜, 2007), 허용적,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는 낮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은혜, 2007). 그러나 애착과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기 경험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진로발달을 예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선혜연, 김계현, 2007). 따라서 최근 진로연구에서는 관계 맥락적 관점에서 부모의 진로개입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Young et al., 2006; 이현주, 2009).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의 진로지지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부모의지지 방식을 분류하는데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신효정, 2010)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욕구와 관련된 사랑, 관심, 격려, 공감에 관한 지원을 말하며, 평가적 지지는 인격과 의사 존중, 소질 인정, 공정한 평가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정보적 지지는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위기적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조언, 지도,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되며, 물질적 지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돈, 서비스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이광자, 2004).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개입하는 유형에 따라서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지지적 개입, 의도적 개입, 강요적 개입, 비판적 개입의 방식은 유형에 따라 자녀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자녀의 진로주도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김민정, 2011).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는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정, 김영빈 등, 2010; Betz, 1989).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의식 성숙과 상관(한수민, 오인수, 2014)이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성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실, 최경숙, 2007).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임과 진로발달과정이 진로관련 정체감을 실현해 가는 과정임을 고려하여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진로탐색 초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 폭과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진로발달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진로발달에는 개인 내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성격 5요인을, 환경적인 변인으로는 부모의 지지를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모의 지지는 부모의 진로지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신경증이 높은 자녀에게는 평가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실성이 높은 자녀라면 평가적 지지도 긍정적인 기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부모의 지지유형과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호작용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은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신경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이 사이에서 부모지지의 유형에 따라 성격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을 탐색적으로 살펴본다면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격요인과 부모의 지지유형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깊이 이해하는

한편, 진로지도 및 교육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 중학교의 2학년 학생 180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연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다.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98명, 여학생은 82명이다.

측정 도구

성격 5요인

Costa와 McCrae(1992)의 성격 5요인 검사를 안창규와 이경임(1996)이 번안하고 요인분석한 후 선별한 6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성격 5요인 검사를 사용했다. 척도는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며, 부정문 문항은 역순으로 채점하였다. 성격 5요인은 개방성 .63, 성실성 .81, 외향성 .84, 친화성 .71, 신경증 .79, 전체 문항은 .76으로 보고되었다.

진로관련 부모지지

Turner 등(2003)의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김수리(2004)가 번안하고 수정한 25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부모의 진로관

런 지지로서 도구적 조력, 진로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 등으로 구성된다. 도구적 조력은 자녀가 진로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관련 모델링은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격려는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의미하며,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였다. 척도의 신뢰되는 진로 모델링 .79, 정서적 지지 .83, 도구적 조력 .80, 언어적 격려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유형과 자녀 성격특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부모지지의 각 유형별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

박아칭(1996)의 자아정체감 검사와 Holland(1980)의 진로정체감척도(Vocational Identity Scale)를 조은주(2001)가 진로와 관련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에 대하여 6 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의 단축형인 CDMSE-SF(Betz, Klein, & Talor, 1996)를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황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의 4개 하위요인,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였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장애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자료 분석

SPSS를 사용해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격특성이 진로발달(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지지 유형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더불어, Hayes(2012)의 process 프로그램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Hayes(2012)의 방법은 조절모형 전체의 유의성과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결 과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표 1.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

변인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진로 모델링	정서적 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격려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i>M</i>	3.65	2.99	3.23	3.29	3.27	3.70	3.44	3.24	3.72	3.43	3.49
<i>SD</i>	0.56	0.58	0.48	0.35	0.40	0.72	0.72	0.69	0.71	0.57	0.53
외향성	-										
신경증	-.30**	-									
성실성	.28**	-.30**	-								
친화성	.50*	-.38**	.37**	-							
개방성	.35**	-.12	.38**	.32**	-						
진로모델링	.31**	-.01	.25**	.24**	.32**	-					
정서적지지	.34**	-.22**	.39**	.19*	.16*	.45**	-				
도구적조력	.20**	-.17*	.37**	.14	.18*	.46**	.77**	-			
언어적격려	.33**	-.13	.36**	.22**	.29*	.49*	.63**	.55**	-		
진로정체감	.23**	-.13	.29**	.35**	.29**	.20**	.20**	.25**	.24**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9*	-.21**	.46**	.24**	.37**	.34**	.35**	.34**	.38**	.66**	-

주. * $p < .05$, ** $p < .01$,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부분의 성격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신경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정체감 역시 성격 5요인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의 방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신경증과의 상관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모지지 하위요인들 역시 성격 및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단, 진로모델링과 신경증, 언어적 격려와 신경증, 도구적 조력과 친화성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격요인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관련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유형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 때, 성격 5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종속 변인으로, 진로관련 부모지지의 하위유형들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격 5요인 중에서 친화성과 부모지지 유형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친화성과 정서적지지의 상호작용은 전체 조절모형의 $R^2 = .16$, $F(3, 168) = 11.03$ 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상호작용 항 투입으로 인한 설명량의 변화(R^2 변화량)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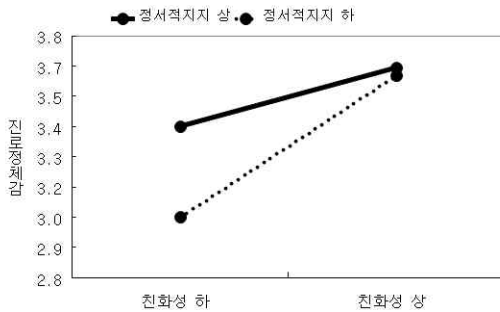


그림 1. 자녀의 친화성과 부모의 정서적지지 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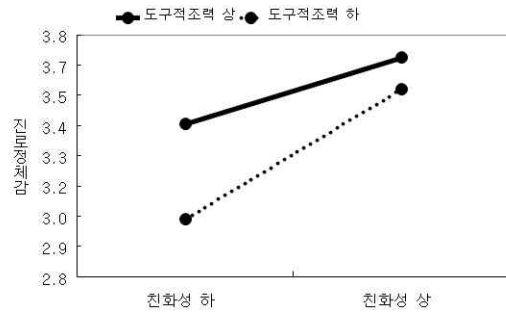


그림 2. 자녀의 친화성과 부모의 도구적조력 간의 상호작용

.02로 .05수준에서 유의한 변화였으며, 구체적인 조절양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친화성과 도구적 조력의 상호작용은 전체 조절모형의 $R^2 = .18, F(3, 168) = 12.12$ 로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한 설명량은 약 2% 증가하였다(표 2 참조). 구체적인 상호작용은 그림 2와 같다. 다른 성격요인과 부모지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된 상호작용의 양상은 유사하였는데, 친화성과 정서적 지지(친화성: $\beta = .59, p < .001$; 정서적 지지: $\beta = .14, p < .05$) 친화성

과 도구적 조력(친화성: $\beta = .58, p < .001$; 도구적 조력: $\beta = .19, p < .01$)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주효과는 각각 유의했다. 또한, 그림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친화성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데, 그 영향력은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조력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조력이 높게 지각할 때는 친화성 수준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으면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성격요인과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격요인	부모지지	단계	예측변인	진로정체감		
				β	R^2	ΔR^2
친화성	정서적 지지	1단계	친화성	.59***	.14***	
		2단계	정서적지지	.14*		
		2단계	친화성 X 정서적지지	-.34*	.16***	.02*
친화성	도구적 조력	1단계	친화성	.58***	.16***	
		2단계	도구적 조력	.19***		
		2단계	친화성 X 도구적 조력	-.27*	.18***	.0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성격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관련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앞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격요인과 부모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향성과 정서적지지, 신경증과 진로모델링, 성실성과 언어적 격려, 친화성과 정서적 지지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보였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이, 진로관련 부모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거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때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 때는 외향성에 따른 차이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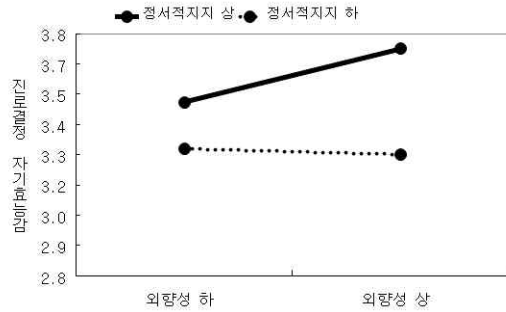


그림 3. 자녀의 외향성과 부모의 정서적지지 간의 상호작용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진로모델링이 높다고 지각할 때는 신경증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진로모델링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성격요인과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격요인	부모지지	단계	예측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β	R^2	ΔR^2
외향성	정서적 지지	1단계	외향성	.09	.13***	
		2단계	외향성 X 정서적지지	.22***		
신경증	진로모델링	1단계	신경증	-.15*	.15***	
		2단계	신경증 X 진로모델링	-.22*	.18***	.03*
성실성	언어적 격려	1단계	성실성	.39***	.26***	
		2단계	성실성 X 언어적 격려	.21***		
친화성	정서적 지지	1단계	친화성	.35**	.16***	
		2단계	친화성 X 정서적지지	.26***		
		2단계	친화성 X 정서적지지	-.27*	.18***	.02*

† < .10,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진로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시기의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인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성격 5요인을, 환경적 요인으로 진로관련 부모의 지지를 살펴보았으며 자녀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지지유형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신경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성격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오은주, 2013; Hartman & Betz, 2007).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 4개 하위 요인들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서진희, 이제경, 2009; 임영순, 최연실, 2009).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에게도 성격과 중요한 타인의 영향력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중학생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격과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진로지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친화성에서만 부모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화성이 낮은 학생은 친화성이 높은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낮았지만 친화성이 낮더라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부모가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받고 있는 경우)은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다시 말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친화성의 높낮이와 비교적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을 낮게 지각하는 학생은 친화성이 높으면 비교적 높은 진로정체감을 가지지만 친화성이 낮으면 진로정체감도 낮은 양상을 보인다. 친화성이 다른 지지유형(진로모델링, 언어적지지)과는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과 상호작용을 보인 것은 친화성이 갖는 특성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친화성이 높은 학생들은 부모이외의 교사나 친구, 선후배 등에도 풍부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전은진, 2013; 하대현, 황해익, 남상인, 2008) 부모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모델링 대상이나 타인의 지지와 영향을 받아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으나 친화성이 낮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타인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나 진로관련 도움을 받을 인적 자원이 적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성격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관련 부모지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개방성을 제외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모두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진로정체감보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모의 지지가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정체감이라는 것은 주로 모델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학생 시기부터의 정체성 형성은 부모보다는 또래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일 수 있다(Paikoff & Brooks-Gunn, 1991). 즉 청소년기는 부모와 분

리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효능감이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설득, 즉 긍정적인 지지와 피드백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Bandura, 1997, 2006), 청소년기일지라도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원천은 여전히 부모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로정체성과는 달리,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는 여전히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결과 어떤 종류의 부모지지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 성격요인마다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성격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부모지지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외향성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달랐는데, 특히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부모의 정서적 지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향적인 학생들이 외부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김태연, 2011)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경증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진로모델링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진로모델링이 낮은 경우에는 학생의 신경증 정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부모가 진로모델링을 보여준 경우, 신경증이 낮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높은 신경증 즉 정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부모와 같은 외부 인물이 보이는 긍정적 언행을 동일시하거나 모델링하는데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실성의 경우에는 부모의 언어적 격려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성실

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언어적 격려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외부의 규율과 규칙, 의무 등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김태연, 2011)과 관련된 성격이므로, 상기 결과는 성실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부모라는 권위적 대상이 제공하는 언어적 정보와 격려를 더욱 주의깊게 듣고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친화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으면 친화성 고저와 관계없이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는 친화성이 낮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진로정체감에 대한 효과와 마찬가지로 친화성이 높은 학생들과 달리 친화성이 낮은 학생들은 부모 외에는 정서적 지지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격요인 및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장 많이 보이는 부모 지지의 유형은 정서적 지지이다.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서진희, 이제경, 2009; 엄영순, 최연실, 2009; 이순옥, 2014)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엄영순과 최연실(2009) 역시 중학생에게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평가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는데

(이경선, 2009),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진로지지의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성격유형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진로지지 유형이 달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녀 혹은 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지행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친화성이 낮은 경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을 통해 진로 정체감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신경증이 낮은 학생에게는 진로 모델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신경증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진로 모델링과 관계없이 자기효능감은 다소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성격 특성에 따라 더 도움이 되거나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 진로지지 유형을 밝혔으나, 이를 실제 진로지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 대해 연구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표집된 모집단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표집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진로관련 변인에 대한 설문에 대해 자기보고식 형식에 따라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보고자가 설문을 할 당시의 경험이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 자료로서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특성 요인인 성격이 잠재적인 진로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 중학생의 진로 선택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중학생의 진로선택을 예측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개인 변인(예: 진로흥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지지는 부모가 실제 보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 내적 변인인 성격과 환경적 요인인 부모 진로지지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각이 아닌 부모의 지각 또는 실질적인 행동지표 등을 연구변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구 (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관구 (1997).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인성과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혁본 (2001).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원 (2013). 성격 특성과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 607-624.
- 김수리 (2004).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 청구논문.
- 김정애 (1994). 사회적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김태연 (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격 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목경수, 구자경 (2012). 고등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 1119-1139.
- 박아청 (2008). 성격심리학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박은혜 (2007). 자기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 관계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 93-116.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 2153-2167.
- 신호정 (2010).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173-190.
- 엄영순, 최연실 (2009).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 197-224.
- 오은주 (2013). 대학 진로교과목 수강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화유형: 성격과 성차 효과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적용.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현정 (2008). 성격 5 요인과 진로태도성숙도와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병언 (1988). 진로의식 성숙과 내외 통제성 및 일반 성격 검사 하위변인과의 관계.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대용 (2012). 성격과 직무수행 간의 비선형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299-324.
- 이광자 (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27-136.
- 이길수 (2004).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5요인 성격특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동귀, 이수란 (2008). 고등학생의 자기 평가소재 하위요인 군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 269-293.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옥 (2014). 부모관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원, 이기학. (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 정서적 어려

- 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55-87.
- 이현주 (2009).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 79-102.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38, 235-257.
- 전은진 (2013). 초등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과 교사-학생 관계만족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 1085-1099.
-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 389-408.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대현, 황해익, 남상인 (2008).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학업, 적응, 진로 관련 준거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 609-629.
- 한수민, 오인수 (2014).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 261-281.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York: Holt, Rinehart and Winsto.
- Bandura, A. (2006).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 164-180.
- Bandura, A. (1997). Personal efficacy in psychobiologic functioning. In G. V. Caprara (Ed.), *Bandura: A leader in psychology* (pp. 43-66). Milan, Italy: Franco Angeli.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Church, A. T., Teresa Rosebrook, J. S., Szendre, D. (1992). Self-Efficacy for careers and occupational consideration in minority highschool equivalenc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98-508.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 5-13.
- Erickson, R. P. (1968). Stimulus coding in topographic and nontopographic afferent modaliti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activity of individual sensory neurons. *Psychological review*, 75, 447-465.
- Fretz, B. R. (198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areer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77-90.
- Hartman, R. O., & Betz, N. E. (2007). The five-factor model and career self-efficacy general and domain-specific relationship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145-161.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 2012. pdf.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olland, J. L. (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6th Grad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8-236.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dentity. *Vocational Quarterly*, 21, 169-173.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Lee, J. (2012). Dynamic growth model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in South Korean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0, 1555-1568.
- Lent, R. W., &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66.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urner, B. L., Kasperson, R. E., Matson, P. A., McCarthy, J. J., Corell, R. W., Christensen, L., ... & Polsky, C. (2003). A framework for vulnerability analysis in sustainability sci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 8074-8079.
- Young, R. A., Marshall, S., Domene, J. F., Arato-Bolivar, J., Hayoun, R., Marshall, E., Zaidman-Zait, A. & Valach, L. (2006). Relationships, communication, and career in the parent-adolescent projects of families with and without challeng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1-23.

1차 원고접수 : 2018. 04. 17

2차 원고접수 : 2018. 05. 11

최종게재결정 : 2018. 05. 31

Effects of Five Personality Factors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Moderating Roles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Young Ja Park

Suran Lee

Eun Kyoung Chung

Baekseok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big 5 personality) and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is study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who start career development in earnest. 180 students responded to our questionnaires including five personality factors Inventor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career identity scal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All five personality fact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four factors except neuroticism. The moderating roles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identity was found to agreeableness,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five personality factors were in four personality factors except for open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can be effective to use appropriate support strategy to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by understand the adolesc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five personality factor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